

인권주일
설 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막 1:40~45, 7:24~30, 8:35>



허 백 기 목 사 (교토남부교회)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는 일본인에게도 살게 좋다”라는 표어가 외기협에 의해 채택된지 십 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말의 진실함이 유감스럽게도 거꾸러진 형태로 증명되고 만 것이 요즘의 이 나라, 이 사회입니다. 지난 6년쯤 헤이트 스피치 (Hate Speech) 가 난무하는 것은 당연 시 되고, ‘일본제일당’이라는 무서운 이름을 내걸은 극우 정당이 동경 도지사 선거에서 18만표를 획득하게 된 이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소수자를 따돌리고, 다르다는 이유로 격리하며 공격하는 차별지향적 경향은, 이제는 같은 ‘일본 국민’을 타겟으로 삼으며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최전선에서 미지의 감염증과 분투하고 있는 의료 관계자들을 자신들 주변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다가 면역을 갖추고 회복되어오는 감염자들을 “일본에서 나가라”며 배척합니다. 행동 패턴과 판단 기준이 다른 타자를 익명으로 철저히 공격하는 ‘자숙경찰’, ‘귀성경찰’이라 불리는 이들이, 마치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해소라도 하는 듯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비방중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익명의 비판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을 결정하는 일이 당연사가 되고 만 이 사회에서는 다수자인 평균적인 일본인들도 편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안하기는 커녕 ‘타겟으로 지목될 공포’에 떨면서 움츠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나병 환자와의 만남(막1: 40~45) 장면에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며 확신에 차서 끓어 엎드린 환자에게, 예수는 손을 내밀어 만져서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나병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모든 감염증 가운데 가장 감염력이 약한 부류의 병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으며, 율법에 의해 만지기는 커녕 가까이 하는 일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시대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일보다는, 지금 자신에게 도움을 바라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서 살리는 일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막7: 24~30)에서는 귀신들린 딸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어머니가 냉대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붙잡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의 첫 반응은 아주 냉담했

습니다. “자녀의 땀을 쥐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 개들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도 용납이 안되는 모욕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그 외의 족속 사이에 분명한 일선을 긋고 깔보는 말이지요. 예수도 역시 당시의 한 유대인으로서, 이 방인과 교류하기를 금지하는 차별적인 가르침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것일 겁니다. 그러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필사적이면서 제치있는 반론에 생각을 바꾸셔서 그의 딸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곧 자신의 무자비한 말에 의해 상처를 입은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스스로의 차별의식을 대면하시며, 그 행동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 두 장면에 공통되는 예수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 시대에서 지배적인 사고에 영합하거나 익명의 비판자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행동을 자제하지 않고, 들어야 할 목소리를 듣고 이루어야 할 행동을 이루는 태도입니다. 또 율법이나 상식을 일단 따라주므로 무난함 안에 안주하기보다는 무엇이 옳은지를 믿음에 비추어서 결단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사람들의 평가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평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택하는 태도입니다. 또 그 태도들은 ‘내 자신을 지키기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과 바르게 서는 일을 우선한다’는 정신으로 관철되어 있습니다.

교황 프란시스코는 지난 3월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사제들이 밖으로 나가 병든 자들을 만나러 가고… 의료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임무에 동반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과 사제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모이는 일, 나가서 다니는 일이 금기인 이 시대에 무슨 무모한 이야기인가?”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 길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가 나타낸 방향성은 옳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듭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 예수가 계신다면 어디를 향하실 것이며 누구와 함께 하실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실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답은 자명적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 더 무게를 갖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자기 믿음을 걸고, 고뇌하면서도 각자의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左に韓国語(改革改版)、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A5版変型・1772ページ

●価格: 3,0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특집 신형코로나19의 감염 위기와 교회 예배 현상

관동지방회 한사랑교회

김근식 목사

3월 이후 주일예배(1,2,3부)를 2부로 통합하여 온라인 유튜브·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으며 주일 오후 찬양예배와 금요기도회, 예배후 식사, 성경공부 등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교회학교(유.초, 청소년부)는 온라인 ZOOM 예배, 청년부는 온라인 ZOOM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는 각자 녹음한 영상을 취합, 편집하여 영상 찬양으로 하고 일본어 통역은 Line단체방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예배에는 교역자, 장로, 방송스텝,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인근 지역의 신도만 참석하고 대부분의 신도는 유튜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신도들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설교시간을 줄였고, 또한 행사 및 교제의 변화는 주일마다 함께 친교를 나누던 시간을 떠올리며 '한사랑 사랑합니다' 캠페인(인사와 안부를 영상으로 준비)을 진행중에 있으며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선별) 및 전 교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동지방회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

구자우 목사

3월~5월까지는 예배의 녹화를 영상으로 각지역마다 배신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는 당회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6월부터는 밀집되지 않도록 자리를 비워서 다시 회집하고, 예배는 3부로 나누어서 인원을 분산하고 지정석으로 하였습니다. 교회 안팎은 주말에 소독하고, 예배 시간 사이마다 소독하고, 출입시에는 체온 검사, 온몸 소독, 손 세척, 신발까지 소독합니다. 예비 마스크도 준비하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회도 안하고, 다른 모임도 다 없고 즉시 귀가합니다.

예배에 따른 문제점은 예배에 80~85%의 신도들만 참석하는 것과, 좌선을 다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지만 여전히 전염의 위험을 안고 있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신도들에게 매일 보내는 성경묵상(PDF, 한국어/일본어 녹음파일)을 지속하고, 온라인과 휴일, 야간 등을 이용한 소수 집중 성경공부를 계획 중입니다.

교회의 재정은 신도들이 열심히 헌신해 주시고, 지출을 조정하면서 감당해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가 활성화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관동지방회 반석교회

조영석 목사

3월 첫 주일의 제직회를 통하여 3월 29일 주일까지 4주간 제1차로 교회에서의 모든 모임과 주일예배를 중지하고, 카카오톡의 라이브 송신과 문서로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 5일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서의 주일예배를 재개하면서 점심식사와 모임은 모두 중지하고, 3密을 비롯하여 소독과 마스크 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인들 1/4이 이상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8월을 맞이하면서 8월 9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제 2차로 교회를 폐쇄하여 제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배만 하고 있

습니다.

주일 예배 만이라도 교회에서 하고 싶지만 교회 주변의 이웃들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마음대로 강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만 교회 월세를 내면서 건물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만 인내해 보려고 합니다.

중부지방회 토요하시교회

정수환 목사

전쟁 중 교회합동 외에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려온 예배가 단절되지 않도록 교우가 하나가 되어 예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라이브예배를 못하는 이유는 인터넷 환경이 설치되지 못한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지켜가기로 3월 당회에서 결정한 후 교우들의 협력과 이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우 각자가 감염 예방 대책을 하기로 하고, 주일 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불안(지병, 기초질환)이 있는 교우는 각자 판단하면서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각자 마스크를 사용하고, 찬양할 때도 각자의 판단에 맡겨 실행하고 있습니다.

3~5월 예찬회를 중지한 것 외에는 교회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중부지방회 나고야미나미교회

전병옥 목사

지난 4월5일부터 9주간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영상예배를 드리다가 6월7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대책으로 알코올 소독제를 비치하고, 예배 참석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모든 문을 개방하고 거리 두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예배 외의 모든 모임과 활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의 예배 참석은 어린 자녀를 둔 두 가정이 간간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 재정은 신도들의 일거리가 줄어 평소보다 20% 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이지만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서로서로 위로와 격려 가운데 힘을 내고 있습니다.

관서지방회 후세교회

전성삼 목사

5월말에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후부터 다시 주일 오전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는 쉬지 않고 드리고 있었습니다.

7월이 되어 오사카도 코로나 확정자가 많아졌고 당회에서 결의하여 주보에 「코로나 확정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서는 주일오전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만 각자가 무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몇명의 신도들은 8월말까지 가정에서 주일을 지킨다고 전해왔습니다.

4월부터 라인으로 연결된 신도들에게는 주보와 짧은 영상 메세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라인 연결이 안되는 신도들에게는 주일 주보를 집까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는 알콜 소독을 하고 적당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예배시간도 단축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도 점심식사와 오후예배도 없는 상태라 정말 섭섭한 상황입니다.

관서지방회 오사카제일교회 송 남 현 목 사

예배에는 전 신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출입문을 개방한 채, 주일 오전예배만 드리고 있으며, 성가대 찬양은 유튜브에 있는 찬양 뮤직비디오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참석하는 새벽예배와 수요예배, 교회학교 예배는, 이전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긴급사태가 선언되었을 때 부터, 고령자들과 기초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과 지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 신도들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서, A그룹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어디서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B그룹은 예배 실황을 녹음한 CD를 우편으로 발송해서,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작년 동월대비 재정이 감소하였습니다.

관서지방회 이마후쿠교회 박 애 선 목 사

3월 하순부터 점심과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를 중지하고 있지만, 주일 오전 예배는 쉬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참석못하는 신도에게는 라인이나 카카오톡으로 주보와 그날의 기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온라인 영상 예배 등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입구와 여러곳에 소독 알콜 액을 준비하고, 예배 참석자 모두 마스크 착용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책으로 노인 흄의 시설과 질병의 성도들을 병문안을 갈수 없는 안타까움과 지금까지 교회를 지원하고 지켜온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 못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서지방회 오사카칙코교회 박 시 영 목 사

4월이후부터 감염방지의 일환으로 교회 현관에 소독약을 설치하고, 마스크 착용을 신도님들께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좌석의 간격을 유지하며, 에어콘을 사용하는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고 이전과 동일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단지, 매주 예배후에 가졌던 애찬회를 일단 중지하고, 7월부터는 월1회 정도로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애찬회가 없는 주간에도 신도님들 간에 교제의 장을 원하는 의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서 티타임30분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공부회와 한국어 교실은 계속해서 중지 중에 있으며, 예배참석이 어려운 신도들에게는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요약을 실어서 그것을 통해 참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서지방회 도요나카제일부흥교회 박 영 자 목 사

우리교회는 원래부터 출석인원이 10명 이하라서 좌석의 간격을 넓히는 등의 대책을 세우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매주 예배의 라이브방송(zoom예배)을 시작했습니다. 수 주동안은 교회원끼리 테스트사용을 한뒤, 교회밖의 분들을 초대하기로 하고, 매주 250명에게 링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균 4,5명의 참가자가 있고, 교인이 아니지

만 아는 분들이 참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가해 주어서 오히려 예배 출석자가 늘었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열려있고 어느분이 와도 환영하지만, 보통은 모르는 분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알기쉬운 설교, 크리스천만을 향한 내용이 아니라, 선교를 의식한 예배의 개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방회 니이하마그레이스교회 안 진 남 목 사

4월26일부터 교회에서의 예배를 일시 중지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프로그램을 인쇄하여 가족들에게 나눠주었고, 이후 2주간을 추가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편으로 프로그램을 송부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가정 예배는 3주간 만에 끝내고, 그 후는 〈3密〉을 피하기 위해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문을 연 상태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으며, 예배 후 식사도 중지하고,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가족들이 귀가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서남지방회 시모노세키교회 김 성 언 목 사

3월부터 수요예배와 목요 성경공부 모임을 중단하였고, 수요예배는 가정예배서를 가지고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예배 후에 제공된 식사시간을 잠시 동안 쉬고 있습니다. 또한 성찬식 등 접촉이 일어날만한 일을 피하면서 예배중 마스크 착용, 거리를 두면서 예배 드리기, 공기의 환기와 소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주일예배만을 드릴 계획을 세웠지만 지역 교회들과의 교류가 어려워지면서 한일교류회와 공동예배가 올해 모두 중지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시모노세키교회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해쳐 나가야 할지,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중보기도 해나갈 것입니다.

서남지방회 츠시마메구미전도소 박 영 철 목 사

3월 첫 주부터 주일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식집회가 중지된 가운데, 매주 토요일 오후,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보, 설교문, 간단한 음식물 등을 전달하며 가정집회를 격려하고 형편을 살펴왔습니다. 그동안 대마도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월 마지막 주일부터 모든 집회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한일갈등의 직격탄을 맞은 대마도는 극심한 경제난 가운데,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인들 중 일부는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기도 하고 일부는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들의 예배 출석률이 높아지고 또 새로 등록한 교인들이 생기면서 예배실이 좁아서, 지난 7월초 2주간에 걸쳐 순수하게 교인들만의 힘으로 예배실 벽을 헐고 예배공간을 확장하는 공사를 마치고 큰 감격을 맛보았다. 하지만 7월말 대마도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8월 첫째 주부터 주일예배 외 모든 모임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武庫川教会

주경중, 조순원명예장로, 키요 모토유즈루 명예집사 추대식 및 김덕숙권사취임식 거행



**讃頌歌委員会より「子どもさんびか」が
発行されました。**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説文・十戒 集録
(いず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総会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豊かな味、豊かな心。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특별기고

上信越・東北 지역 교회 방문기

장 경 태 목사

(후나바시교회 · 총회 부서기)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없는 데 교회를 세우자는 운동에 힘입어 설립된 교회들 중에 금번에 치쿠마(千曲)비전전도소(2012년 설립, 박형진목사, 長野県), 나가노(長野)교회(1991년 설립, 최화식목사, 長野県), 니이가타(新潟)교회(1990년 설립, 이재익목사, 新潟県), 야마가타(山形)우리교회(1994년 설립, 이명신목사, 山形県), 센다이(仙台)교회(1984년 설립, 서동일목사, 宮城県), 기타가미(北上)벨엘전도소(2008년 설립, 홍웅표목사, 岩手県), 미사와(三沢)교회(1986년 설립, 조원철목사, 青森県), 코오리야마(郡山)전도소(2009년 설립, 박정근목사, 福島県)를 총간사 김병호목사가 방문하면서 총회 부서기의 직책을 가지고 동행하였다.

방문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영향으로 인하여 반년 이상 온라인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었던 원거리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여 격려와 기도를 통하여 총회와 지방회와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교회로서의 존재를 인식하며 공유하는 것이었다.

이 지역 교회들은 198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삶의 정황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와서 정착하게 된 세대들의 중심으로 설립되어 낯선 일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조국과의 끈끈한 연결, 신앙 형태는 아무래도 한국교회의 영향으로 인하여 열심과 뜨거운 기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쉽지 않은 일본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상담과 심적 치유를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과 열정을 가진 목회자가 요구되고 있었다.

●치쿠마(千曲)비전전도소는 한국에서 새롭게 선교사로 김형진목사가 지난 2월에 부임하여 적응하고 있으며, 전도소는 그동안 모아놓은 1천만 원의 건축 현금을 가지고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가노(長野)교회는 최화식목사의 노련한 목회 역량을 통하여 교회를 성숙한 교회로 성장시켜 중부지방회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내부 공사중인 새로운 니이가타교회

●니이가타(新潟)교회는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독자적은 교회당을 매입하여 내장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9월 첫 주일에 입당한다고, 그리고 완성하지 못한 내장공사를 위해 부족한 자금 200만 원을 위한 기도를 부탁받았다.

●야마가타(山形)우리교회는 이명신목사가 부임한지 벌써 13년이 되었다 한다. 일본 농촌지역에 뿌리를 내린 교회로서, 일본교회 등과의 연대, 동북지역 교역자들의 선배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센다이(仙台)교회는 동북지방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센다이시에 위치하여 동북대학, 동북학원대학(기독교 대학)이 주변에 있으며, 한국 총영사관이 있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화가 교류하는 지

역, 그리고 3.11동일본 대진재의 현장으로, 교회는 주목을 받고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다. 서동일목사는 11년째 섬기고 있다.

●기타가미(北上)벨엘전도소는 농업과 공업이 중심인 이와테현의 중앙의 北上市에 자리잡은 교회로, 홍웅표목사 부임하여 조금씩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었다.

●미사와(三沢)교회는 5년 동안 신도와 교역자가 없어서 문을 닫았던 교회를 조원철목사가 부임하여 문을 열고 예배를 재개하였다. 사명감과 좋은 인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목사에게 큰 기대를 걸어 본다.

●코오리야마(郡山)전도소는 피제지 지역인 福島県의 농촌에 자리 잡고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 선교를 위해 박정근목사가 큰 수고를 감당하고 있었다.

1,900km의 자동차 운전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무사히 다녀오게 됨을 감사드리며, 오늘과 같은 격리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들을 위한 관심과 도움은 필요하다. 몇몇 교회에서 보내어진 김, 쌀, 라면 등의 작은 선물이 큰 감사와 감동이었다고….